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4월 21일 금요일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강원도민일보	21면	도내 어르신 3200여명 '활력 충전' 스포츠 기량 펼친다	1
江原日報	04면	“ 정부 원칙 · 소신 지키며 北 비핵화 고수 ”	2
江原日報	온라인	[포토뉴스] 강원통일교육위원 워크숍 '2023 국제질서와 남...	3
江原日報	22면	양구수목원 사계절썰매장 개장식	3
江原日報	온라인	[포토뉴스]양구수목원 사계절썰매장 개장식	4
강원도민일보	16면	[동정] 이현종 철원군수 · 서흥원 양구군수 · 이기찬 도의원 · ...	5
강원도민일보	04면	강릉 2청사 예산 예결특위 살얼음판 "조직 미확정에 편성 ...	6
江原日報	03면	"道 제2청사 7월 개청 왜 고집하나" 집중 질타	7
 KBS 춘천	온라인	2청사 예산 우회 부활 추진... “ 의회 웃음거리 만드나? ” 반...	8
江原日報	21면	영월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9
강원도민일보	03면	도 여야 "필승전략 수립" vs "정책으로 승부" 총선준비 박차	9
江原日報	온라인	[포토뉴스]국민의힘 강원도당 총선거획단 연석회의	10
강원신문 지방시대 글로벌 리더 gwnews.org	온라인	인제전지훈련센터 준공, 인제군 90억원 투입.. 스포츠 도시...	11
江原日報	온라인	[포토뉴스]평창군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12
강원도민일보	16면	[동정] 엄기호(철원) 도의원	12
강원도민일보	02면	전기차 배터리 재제조 평가센터 횡성에 건립	13
강원도민일보	04면	전국시도교육감협 · 교원양성대 총장협 '정부 교원감축' 비판	14
江原日報	04면	10대 청소년 마약 범죄 예방 강원경찰청 · 도교육청 협력	14
江原日報	01면	동해에 글로벌 IT기업 DC 유치 가시화	15
江原日報	02면	동해에 글로벌 IT기업 DC 유치 가시화	16
강원도민일보	20면	"강릉옥계항 항만 기능 강화 환동해 물류 거점도시 도약"	16
江原日報	18면	"강릉여행 오세요" 서울서 관광 홍보	17
강원도민일보	16면	철원 열번째 울리저수지 207만t 규모 축조	17
江原日報	05면	"산불 피해자가 무슨 잘못 있다고 40% 책임지나" 격앙	18
The JoongAng	U07	“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되면 1조원 넘는 경제파급...	19
강원도민일보	05면	오락가락 날씨에 냉해 입을까 농민 노심초사... 황사도 온다	19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춘천 데이터센터 총력전 펼쳐야	20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고속화철도망 조기 구축 여론 거세다	21
江原日報	25면	[사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전면 재점검을	22
江原日報	25면	[사설] 유류세 인하 연장, 경제 후퇴로 이어져선 안 돼	23

강원도민일보

2023년 04월 21일 (금)

스포츠 21면

도내 어르신 3200여명 ‘활력 충전’ 스포츠 기량 펼친다

강원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막

박상수 시장·김상하 회장 감사패
도체육회 강릉 산불 성금 전달도
민경옥·전옥란씨 최고령 참가상

‘제18회 강원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가 20일 삼척에서 성대한 막을 열었다.

이날 삼척시체육관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신경호 도교육감, 양희구 도체육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회장, 박상수 삼척시장을 비롯한 8개 자치단체 시장·군수, 정정순 삼척시의장을 비롯한 10개 시·군 의회장, 17개 시·군 체육회장 등이 참석했다.

시·군 대항전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회에는 만 60세 이상 생활체육 동호인으로 구성된 도내 18개 시·군 선수 및



제18회 강원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회식이 20일 삼척시 체육관에서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회의장, 신경호 도교육감,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시장·군수,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임원 3200여명이 15개 종목에서 각고 닦은 실력을 겨룬다. 특히 이번 대회는 민선 2기 강원도체육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 개최되는 종합체육대회다.

이날 개회식에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 준비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박

상수 삼척시장과 김상하 삼척시체육회장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이어 강원도체육회는 강릉 산불 피해 복구 성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임직원들은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1000만 원을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

달할 예정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최고령 참가상을 받게 된 홍천군 게이트볼 대표 민경옥(91·남)씨, 양양군 게이트볼 대표로 전옥란(89·여)씨에게 건강 기원패를 수여했다. 85세 이상 참가 어르신들에

겐 별도로 대회 참가에 감사하고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제작한 기념 메달이 증정됐다.

박상수 삼척시장은 “올해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맞는 뜻깊은 해인 만큼, 삼척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가 특별한 도민, 특별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되어 강원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이번 대회가 어르신들의 심신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오는 6월 11일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우리 어르신들의 경륜과 지혜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양희구 도체육회장은 “18개 시·군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경쟁을 통해 건강과 행복을 찾는 즐거운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르신 생활체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예섭

江原日報

2023년 04월 21일 (금)

사회 04면



◇강원통일교육위원 워크숍이 20일 춘천 KT&G 상상마당 스테이호텔에서 '2023 국제질서와 남북관계'를 주제로 열렸다. 김응권(한라대 총장) 강원통일교육센터장, 김현영 강원대 총장,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김기홍 강원도의회 부의장, 최병수(전무이사) 강원일보 통일문제연구소장을 비롯한 내빈과 패널리스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세희기자

“정부 원칙·소신 지키며 北 비핵화 고수”

강원통일교육위원 워크숍서
남북·국제정세 등 현안 논의

국제정세의 혼돈 속에서 한국 정부가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0일 춘천 KT&G 상상마당 스테이호텔에서 열린 강원통일교육위원 워크숍 '2023 국제질서와 남북관계'에서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인권과 인도주의라는 국제사회의 규범은 북한 정세와 관계없이 한국 정부가 원칙으로 지켜야 하며, 북한과 관련해서는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있을지라도 비핵화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병수 강원일보 전무이사는 이와 관련,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문화적, 인도적인 교류는 물꼬를 트고, 비정치적인 논리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우회로를 만드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한중관계가 어렵고 힘든 국면을 지나고 있으나,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일본은 인적 네트워크 등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며 “한일관계는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성훈 한국외국어대 노어과 교수는 “러시아와 일본 간의 관계가 파탄이나 있는 국면에서 한국은 여전히 러시아에게 가치 있는 국가”라고 분석하고, “지금은 한국 외교가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김응권(한라대 총장) 강원통일교육센터장, 김현영 강원대 총장,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김기홍 강원도의회 부의장, 조건식 강원통일교육센터 운영위원장, 최병수 강원일보 전무이사 등 기관·단체장과 통일교육위원들이 참석했다.

박서희기자 wiretheasia@

江原日報

2023년 04월 21일 (금)
종합

[포토뉴스] 강원통일교육위원 워크숍 '2023 국제질서와 남북관계'



강원통일교육위원 워크숍이 20일 춘천 KT&G 상상마당 스테이호텔에서 '2023 국제질서와 남북관계'를 주제로 열렸다. 김응권 강원통일교육센터장(한라대 총장), 김현영 강원대 총장,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김기홍 강원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내빈과 패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신세희기자

江原日報

2023년 04월 21일 (금)
지역 22면



양구수목원 사계절썰매장 개장식 양구수목원 사계절썰매장 개장식이 20일 현지에서 서흥원 군수와 이기찬 도의회 부의장, 김선묵 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江原日報

2023년 04월 20일 (목)
사회

[포토뉴스]양구수목원 사계절썰매장 개장식



양구수목원 사계절썰매장 개장식이 20일 현지에서 서흥원 군수와 이기찬 도의회 부의장, 김선묵 부의장을 비롯한 기관장 및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4월 21일 (금)

인물동정 16면



(양구·아래 왼쪽)도의
원·김기철 양구군의
원은 21일 오전 11시
인제군에서 열리는 제
21회 4개군 이장 한마
음대회에 참석한다.



이현중(위 왼쪽)철원
군수·서흥원(위 오른
쪽) 양구군수·이기찬

강원도민일보

2023년 04월 21일 (금)
종합 04면

강릉 2청사 예산 예결특위 살얼음판 “조직 미확정에 편성 무리수”

도의회 1회 추경심의서 지적
박정희 공관 보수 실효성 제기

속보=조직개편안 심의없이 편성된 강원도청 강릉2청사예산(본지 4월20일자 2면)이 강원도의회 본심의에서 물매를맞았다.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호)가 20일 2023년도 강원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최재석(동해) 의원은 “(약속한) 7월 1일에 개정을 안하면 도민들한테는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며 “날짜에 맞추려고 하니, 기구확정이 안됐는데 예산 제출 등 무리수가 나온다”고 했다. 또, “기관공동경비는 다르게 보면 ‘우회통과’, ‘편법 통과’”라며 “의회 의결권을 훼손하고, 의회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한영(태백) 의원은 “예산은 수입과 지출의 계획”이라는 김한수도 기획조정실장의 발언에 “계획에 의해 편성한다는 것은 동의를 할 수가 없다”며 “A사업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계획이 틀어졌다고 B사업에 쓸 수 없는 게 행



20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호)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김명선 도 행정부지사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서영

정예산이다. 법적인 근거에 의해 편성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전찬성(원주) 의원은 “지사가 지난 1월 19일 첫 발언을 했고, 그당시 의장단도 그렇고 의원들도 모르는 일을 지사가 터뜨린 것”이라며 “환동해본부, (소관상임위원회인) 농림수산위원회와는 소통이 일체 없다가 지난 12일에 통보식으로 알렸다”고 지적했다.

심오섭(강릉) 의원은 “도민한테는 홍보가 다 됐는데 (개정을 못하면) 실망할 수도 있다”며 “상임위 등과 소통을

하고, 이런 일들이 예결위에 와서 논의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용래(강릉)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 양구제5보병사단 사단장 재직시 머물렀던 양구 하리 공관에 1억 5000만원을 투입해 보수하는 것을 두고 “양구군의 입장은 이해를 하나, 대통령실도 아니고 사단장일 때의 공관”이라며 “연간 방문객이 거의 없다”고 예산 투입의 실효성을 제기했다.

예결특위는 21일 계수조정 등을 거쳐 본심의를 완료한다. 이설화

江原日報

2023년 04월 21일 (금)

종합 03면

“道 제2청사 7월 개청 왜 고집하나” 집중 질타

‘준비 예산 편성 논란’ 도의회 예결위서도 뜨거운 감자

속보=강원도청 제2청사 준비 예산 편성 논란(본보 지난 6·13·14·17일자 2·5·6·4면 보도)이 뜨거운 감자가 된 가운데 예산 통과의 키를 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행정 절차 하자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도의회는 앞서 상임위원회 심의부터 관련 예산을 삭감한 데 이어 예결특위 심사에서도 ‘도의회 패싱’ 등 수위 높은 발언으로 도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최재석(동해) 도의원은

“제2청사를 7월1일에 반드시 개청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행정은 도민을 보고 가야 하는데 이때 개청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돌아오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기구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신청하다 보니 무리수가 나온다”며 “제대로 하는 방법이 안되니 우회 통과, 나쁘게 말해 편법을 쓰는 것인데 의회의 의결권을 훼손하는 일이라 생각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전찬성(원주) 도의원은 “1월 중순 의회가 모르게 제2

“기구도 확정 않고 예산 신청

‘행정 절차 하자’ 지적 잇따라

“의원 농락 꼼수” 거센 비판도

청사 출범이 발표됐고 행정 절차 논란도 결국 소통의 문제가 아니냐”며 “기관 공통 경비로 예산을 낼겠다는 것은 밀실 대형 쪽지안도 아니고 의원을 농락하는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최승순(강릉) 도의원은 “동료 의원들이 지적하듯 승인 과정이 원활하지 못하게 된 절차상의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한수 도 기획조정실장은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4월로 당겨 추경을 편성해야 했고 법률을 어기지 않으면서 이번 추경에서 상황을 해소할 수 있다”며 기관 공통 경비 편성 요청에 대해 “정공법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많은 정부 사례가 있고 예산을 편성하는 여러 기법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의회 예결특위는 21일까지 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이어간다.

정윤호기자 jyh89@kwnews.co.kr

2청사 예산 우회 부활 추진..."의회 웃음거리 만드나?" 반발



[앵커]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20일)부터 이를 동안 강원도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실상 최종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심의 첫날부터 고성이가 오갔는데요.

강릉의 강원도청 2청사 운영 예산 때문이었습니다.

송승룡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쟁점은 강원도청 2청사 예산입니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이 이름만 바뀌 다시 올라왔습니다.

강원도는 삭감된 예산을 그대로 살려달라는게 아니라 도청 전체의 공통 경비를 늘려주면, 이 가운데 일부를 빼내 2청사 예산으로 쓰겠다고 밝힙니다.

[김한수/강원도 기획조정실장 : "일단은 기관공통경비로 세워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또 직제 심의에 따라서 규모가 결정이 되면, 그 안에서 저희가 집행을 하겠다는."]

매당초 해당 예산이 삭감됐던 건 선후가 뒤바뀐 잘못된 예산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조직을 먼저 만들고,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2청사의 경우, 예산부터 세우고, 조직은 나중에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한번 삭감됐던 예산을 다른 예산을 통해 돌려쓰겠다고 나섰습니다.

거센 비판이 잇따라 제기됩니다.

[최재석/강원도의원 : "제대로 하는 것이 안 되니까 우회 통과한다? 나쁘게 얘기하면 편법으로 통과한다? 의회 의결권을 훼손하고, 의회의 구성원들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전찬성/강원도의원 : "꼼수도 이런 꼼수가 없는 겁니다."]

[김한수/강원도 기획조정실장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정부 청사 유지 관리 조직 개편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풀(공통) 경비를 세워 놓습니다."]

[전찬성/강원도의원 : "이걸 어떻게 방법이라고 그러십니까? 상임위에서 반대를 하는데. 그럼, 정지를 했다 가야죠?"]

이에 반해, 일부 강원도의원들은 어차피 쓸 예산이라면 이번에 우회 지원을 허용해주자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송승룡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송승룡

江原日報

2023년 04월 21일 (금)

지역 21면



영월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영월군장애인협회는 20일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최명서 군수, 김길수·윤길로 도의원, 이병용 군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4월 21일 (금)

종합 03면

도 여야 “필승전략 수립” vs “정책으로 승부” 총선준비 박차

국힘 '일편도심 총선거획단' 출범
민주 '해파랑·민주연' 업무협약
정치권, 도 전석 승리 의지다져

22대 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가운데 도내 여야가 20일 나란히 '강원도 석권'을 외치며 22대 총선 준비에 속도를 올렸다.

국민의힘강원도당은 도당 총선거획단을 출범시키며 승리의 의지를 다졌고, 더불어민주당강원도당은 민주연구원 업무협약으로 정책 발굴에 나섰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위원장 유상범)은 이날 춘천도당사에서 '일편도심(道心) 총선거획단'을 출범시키며 강원도 전석 승리의 각오를 다졌다.

김길수 도의원이 단장을 맡고, 유순옥 도의원이 부단장을 맡은 총선거획단은 2024총선까지 조직관리, 여론수렴 등에 나선다. 김길수단장은 "도민들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생 현안을 챙겨 강원도에 정말 필요한 공약을 만들겠다"며 "도민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응원해줄 수 있도록 총선 필승 전략을



강원도내 여야가 22대 총선 승리를 결의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위원장 유상범)은 20일 도당사에서 '일편도심(道心) 총선거획단'을 출범시켰고, 더불어민주당강원도당(위원장 김우영)은 이날 도당 산하 강원해파랑연구소·민주연구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선 정책 발굴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수립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유순옥 부단장은 "지역공약을 발굴하고, 지역과 도민에게 절실한 사업들을 당에 정확하게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일편도심 총선거획단은 심영미 원주시의원, 김태현 도당위원장 정무특보, 김승태 전 권성동 국회의원 비서관, 김영만 전 속초농협 지부장, 안영일 도당 여성자문위원, 김홍섭 도지사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김

우영)은 춘천도당사에서 도당 산하 강원해파랑연구소(소장 이기원)와 민주연구원(원장 정대호)의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총선대비 사업 발굴을 약속했다. 이기원소장은 "내년 총선에서 강원도 석권을 위해 정책으로 승부하자"고 했다. 김우영 도당위원장은 "중앙집중 경제성장 속 개발이익이 특정세력에 집중되고 이들의 기득권화가 시민들의 능동성을 저해한다"며 "강원도제반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총선에 나서자"고 했다.



강원도내 여야가 22대 총선 승리를 결의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위원장 유상범)은 20일 도당사에서 '일편도심(道心) 총선거획단'을 출범시켰고, 더불어민주당강원도당(위원장 김우영)은 이날 도당 산하 강원해파랑연구소·민주연구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선 정책 발굴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도당은 이날 심포지엄을 열고 '불평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주연구원 2022불평등보고서'를 토대로 "강원도는 가장 많이, 오래 일하고 가장 적게 번다"며 주 4.5일 노동, 관광정책, 최저임금인상 등을 주민제안 정책으로 제시했다.

유지영한림대고령사회연구소교수는 "소득불평등은 건강불평등으로 이어진다"며 의료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협약식에는 이연희 민주연구원부원장, 육동한 춘천시장이 참석했다.

이철화·김덕형

[포토뉴스]국민의힘 강원도당 총선거획단 연석회의



국민의힘 강원도당 총선거획단 연석회의가 20일 도당 회의실에서 김길수 단장을 비롯한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승선기자



국민의힘 강원도당 총선거획단 연석회의가 20일 도당 회의실에서 김길수 단장을 비롯한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승선기자



국민의힘 강원도당 총선거획단 연석회의가 20일 도당 회의실에서 김길수 단장을 비롯한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승선기자



국민의힘 강원도당 총선거획단 연석회의가 20일 도당 회의실에서 김길수 단장을 비롯한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승선기자

인제전지훈련센터 준공, 인제군 90억원 투입.. 스포츠 도시로 비상

황만호 기자



인제 전지훈련센터 준공식이 지난 19일, 남면 신남리 전지훈련센터에서 최상기 군수와 이춘만 군의장·군의원, 엄윤순 도의원, 이경 인제교육장,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인제전지훈련센터가 이달 4월 준공되면서 스포츠 도시로의 비상을 위한 인제군의 도약이 더욱 추진력을 얻게 됐다.

인제군은 대규모 스포츠대회 유치로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국도비 포함 총사업비 90억원을 투입, 전지훈련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남면 신남리 290번지 일원에 조성된 인제전지훈련센터는 전지훈련 특화 시설로 연면적 2,782㎡의 지상 2층, 건축물로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숙박시설 등 전지훈련에 필요한 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다.

군 관계자는 인제전지훈련센터 운영을 통해 스포츠대회 참가 선수와 전지훈련선수단 2,000명을 유치하여 지역 내 연간 10억원 이상의 경제 파급효과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인제군에서는 스포츠마케팅과 전지훈련을 통하여 3만 5천여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65억원의 경제효과를 올렸다.

올해 인제군에서는 인제전지훈련센터와 기존 체육시설을 기반으로 60회 이상 체육대회와 30개 이상의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4만명 이상 방문객 유치와 9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발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2024년까지 서화평화체육관 건립 공사, 인제읍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등도 순차적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라 향후 집중화된 체육 기반시설로 인제군 스포츠마케팅은 더욱 활기를 띠 예정이다.

인제군 김춘미 체육청소년과장은 "인제 전지훈련센터를 방문하는 전지훈련팀에게 최고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지훈련센터와 주변 체육시설을 연계하여 인제군이 전지훈련의 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만호 기자 gwnews@daum.net

江原日報

2023년 04월 20일 (목)
사회

[포토뉴스]평창군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평창군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20일 봉평면 한화리조트 1층 그랜드홀에서 (사)강원도시각장애인연합회 평창군지회(지회장:박용상)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심재국 평창군수를 비롯한 심현정 평창군의회장, 지광천 도의원 등 기관사회단체장과 내빈, 장애인 및 자원봉사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4월 21일 (금)
인물동정 16면



엄기호(철원)도의회
은21일오
후 1시 통
일교육원
에서 교육원 증축 및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4월 21일 (금)
종합 02면



미래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20일 도청 신관회의실에서 김진태 도지사, 유원하 현대자동차 부사장, 김명기 횡성군수, 이상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부원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진태 도지사와 참석자들이 협약서에 서명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영

전기차 배터리 재제조 평가센터 횡성에 건립

도·횡성군·현대차·KCL 협약 체결
목계리 일원에 2027년까지 조성

강원도와 횡성군, 현대자동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전기차 배터리 재제조 등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를 토대로 횡성군 목계리 일원에 2027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재제조 평가센터가 들어선다. 강원도와 횡성군, 현대자동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20일 도청에서 미래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진태 지사와 김명기 횡성군수, 유원하 현대자동차 부사장, 이상권 KCL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기관과 현대자동차는 강원형 모빌리티 신규사업 발

굴·육성, 전후방 산업 밸류체인 조성, 모빌리티 산업 기업 유치 및 연구소 유치 등에 협력한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재제조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배터리 고장 분석·수리, 성능 평가, 시험·평가인증을 통한 선도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에서 사용후 배터리(리콜, AS)를 공급하고 KCL은 시험·평가 및 성능검증을 담당한다. 도와 횡성군은 국비확보 등 행정·재정지원을 통해 산업기반을 조성해 전기차 배터리 분야 관련 연구소 유치에 협력한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횡성군 목계리 일원에는 2027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재제조 시제품 제작 및 진단 프로세스 등 장비시스템을 구축하고 배터리 재제조 평가센터 1동(800㎡)이 조성된다.

김진태 도지사는 “전기차와 배터리 사업은 블루오션”이라며 “현대자동차가 강원도에 온다고 하니 가슴이 벅차다”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마음껏 기업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했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관련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실증특례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현철·김덕형

江原日報

2023년 04월 21일 (금)

사회 04면

10대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

강원경찰청·도교육청 협력

강원도민일보

2023년 04월 21일 (금)

종합 04면

전국시도교육감협·교원양성대 총장협 '정부 교원감축' 비판

속보=정부가 교원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하기로 해 강원도내 교육계가 반발(본지 4월 20일자 4면 등)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전국교원양성대총장협의회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을 비롯한 17개 시도교육감으로 구성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교원 정원을 감축한다면 이는 소규모 학교 통합을 더욱 가속화해 지역균형발전 붕괴 및 지역 소멸을 재촉할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학령인구가 감소하니 교원 정원을 감축한다는 정부 방침은 우리나라의 교육을 '콩나물시루'로 상징됐던 과거 모습에 안주하게 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같은 날 춘천교대를 비롯한 전국교원양성대총장협의회도 입장문에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인구 절벽에 종속된 기계적인 감축 논리를 극복, 개인과 국가의 총체적 역량 개발을 담보할 수 있는 창발적 방안이 돼야 한다"라며 인구수에 비례한 교원 수급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민엽

속보=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10대까지 타깃(본보 지난 11일자 5면 보도)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경찰청과 강원도교육청이 의기투합해 예방 활동에 나선다.

강원경찰청과 강원도교육청은 21일 오전 8시 춘천교 정문 앞에서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마약 근절 현장 캠페인'을 벌인다.

이날 김도형 청장과 신경호 교육감 등 지휘부가 직접 나와 청소년들에게 마약 범죄 심각성을 알릴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강원경찰청이 도내 초·중·고교, 학원가에 마약 범죄 예방 전단지를 배포하고, 강원도교육청이 이에 공감하면서 마련됐다.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제조·전달책이 원주의 주택가에서 검거되면서 지역 차원의 예방 필요성이 제기됐다.

강원경찰청은 영동권에 마약 범죄 전담 수사팀을 신설했으며, 도내에는 150명 규모의 단속반을 꾸려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신하림기자

2023년 04월 21일 (금)
종합 01면

江原日報

동해에 글로벌 IT기업 DC 유치 가시화

(데이터센터)

옛 한중대 캠퍼스·북평제2산단
후보지 두 차례 현장실사 마쳐
정부 DC 지방 분산 정책 총력
道-6개 시·군 본격 유치 경쟁

동해시에 세계 최대 수준인 글로벌 IT·반도체 기업의 인공지능(AI) 교육시설 및 데이터센터(DC) 유치가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의 지방 분산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는 동해 외에도 춘천, 삼척, 홍천, 횡성, 양양 등 6개 시·군을 국내외 IT기업 데이터센터 유치 후보지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유치경쟁에 뛰어들었다.

■동해, 글로벌 IT기업 DC 유치 눈앞=강원도와 동해시에 따르면 글로벌 IT·반도체 기업의 임원과 DC 운영을 맡을 국내 대형 포털업체 관계자는 올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 교육원 유치 후보지인 옛 한중대 캠퍼스, 북평제2산업단지를 방문, 현장 실사를 벌였다.

동해시의 대형 화력발전소는 현재 가동률이 30%대로 전력이 남아돌아 DC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유치 후보지인 한중대 캠퍼스는 폐교 부지라 지가가 저렴한 데다 학교 시설을 재활용할 수 있다. 또 달방댐과의 거리가 4.5km에 불과해 서버 냉각에 필요한 물도 충분하다. 또 다른 후보지인 북평제2산업단은 이미 부지 정리,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돼 바로 착공이 가능하고 수소를 활용한 냉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업의 관심을 받고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동해시는 조만간 이 기업과 업무협약을 하고 이르면 연내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신영선 동해시 기획예산과장은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조건을 모두 갖췄다는 점에서 글로벌 IT기업과 긍정적인 논의가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

2면에 계속

江原日報

2023년 04월 21일 (금)

종합 02면

동해에 글로벌 IT기업

데이터센터 유치 가시화

-1면에서 계속

■6개 지자체 DC 최적 후보지 선정=강원도와 시·군은 동해 외에도 최적 후보지를 점 찍어 둔 상태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2027년 준공되는 춘천 동면 지내리 수월에너지 클러스터 데이터산업 융합밸리에 6개 데이터센터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삼척시는 원덕읍 한국남부발전 산업단지 부지, 홍천군은 하오안리 첨단산업단지를 데이터센터 유치 후보지로 꼽고 있다. 횡성군은 횡성읍 조곡리, 둔내면 등을 데이터센터 후보지로 선정하고 이미 국내 민간기업의 투자 협의가 상당 부분 진척돼 있다. 양양군도 손양면, 현남면, 강현면 등 3개 부지에 데이터센터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유치전에 나섰다.

■정부 DC 지방 이전 강력 의지=정부는 데이터센터의 지방 이전을 위해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강원도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을 지시했으며 지방 이전을 사실상 강제하는 분산에너지특별법 등의 법제화도 이뤄지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현재 국내 147개 중 87개(59%)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전력 공급에 과부하가 걸린 상황이다. 강원도와 한진, 춘천, 동해, 삼척, 홍천, 횡성, 양양 등 6개 시·군은 21일 서울에서 데이터센터 유치설명회를 열고 본격 세일즈에 나선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4월 21일 (금)

인물 20면



김홍규 강릉시장은 20일 강릉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강원도민일보 강원미래지도자 최고위 전문과정 굿리더 아카데미 강릉권 특강에서 '강원특별자치도시대, 강릉의 미래발전 전략'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강릉육계항 항만 기능 강화 환동해 물류 거점도시 도약”

김홍규 시장 굿리더 아카데미 특강

김홍규 강릉시장은 20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경제와 관광 두 개의 축을 세우고 문화와 복지로 확실하게 뒷받침해 더 큰 강릉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홍규시장은 이날 강릉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강원도민일보 강원미래지도자 최고위 전문과정 굿리더 아카데미 강릉권 특강에서 ‘강원특별자치도시

대, 강릉의 미래발전 전략’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김시장은 “육계항 항만 기능 강화와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을 통한 물류거점도시 조성을 통해 환동해 항만물류거점도시로 도약하겠다”며 “관광인프라 조성 및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 환동해 마이스산업 중심도시 기반을 구축해 사계절 체류형 국제관광도시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연제 dusdn2566@kado.net

江原日報

2023년 04월 21일 (금)
지역 18면

“강릉여행 오세요” 서울서 관광 홍보

시 오늘부터 28일까지 경기 회복 위한 거리 캠페인
온·오프 매체 적극 활용... 체험·숙박 이벤트 실시

【강릉】“강릉 여행이 최고의 자원봉사입니다.”

산불로 강릉지역 숙박시설 예약이 다수 취소되고 관광객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강릉시가 대대적인 관광 홍보에 나선다.

산불 피해지역의 경기 회복에 전 국민 동참을 호소하기 위한 수도권 현장 캠페인과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마케팅도 실시한다.

시는 21일부터 28일까지 서

울 주요 지역에서 길거리 캠페인을 전개한다. 26일에는 을지로역에서 시와 강원도, 강원도관광재단 및 서울관광재단 합동으로 2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현장 캠페인을 진행한다. 명동 중심지에서도 한국여행업협회, 호텔업협회와 함께 강릉 관광 홍보 활동을 펼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전국 신문을 비롯해 서울역 및 고속버스터미널과 같은 유동

인구 밀집지역, 관내 유명 숙소와 식당 등에도 동참 메시지를 담은 홍보물을 게재, 강릉 여행을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5월에는 국내 파워 인플루언서 20명을 초청하는 팸투어를 통해 주요 관광지와 음식을 소개하고 강릉만의 각종 체험 콘텐츠를 공유한다.

6월 여행의 달을 앞두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강원도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대표 온라인 여행업체 및 강릉지역 숙박 할인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부처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강릉 방문에 동참하고 있다. 이달 중 서울관광재단과 강원도관광재단, 한국관광공사, 양구군 등에서 직원 워크숍 및 업무 연찬회를 강릉에서 진행하고, 충주시산악연맹 회원 860명이 강릉 관광에 나선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재난이 발생한 지역을 여행할 마음이 선뜻 생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행을 멈추면 관광 도시인 강릉은 현재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강릉을 찾아 줄 것을 호소했다.

고달순기자 dsgo@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년 04월 21일 (금)
지역 16면

철원 열번째 울리지수지 207만t 규모 축조

농촌용수개발 저수지 착공식
2027년 완공 450억원 투입
농업용수 안정적 공급 기대

강원도내최대곡창지인철원군의 안정적인농업용수공급을위한철원지역 10번째 저수지가 축조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지사장 채흥기)는 최근철원을 울리에서 울리지구다목적 농촌용수개발을 위한 저수지 착공식을 개최했다. 철



철원군 울리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을 위한 저수지 착공식이 최근 울리리 현지에서 열렸다.

원읍과동송읍지역은벼와시설재배 등의 경작면적에 비해 농업용수가 부

족한가뭄상습지역으로안정적인농업용수확보가절실한상황이다.

울리지구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총사업비 450억원을 투입해 저수지 높이 37.6m, 연장 276m, 총저수량 207만t 규모이다. 저수지가 완성되는 2027년부터 철원을 울리리 등 3개리에 신규 256ha, 보강 46ha, 기설 66ha 등 총 368ha의 농경지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흥기 철원지사는 “철원지역 안정적인농업용수공급과 지역명소가 될 수 있는 명품 울리지수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용

江原日報

2023년 04월 21일 (금)

사회 05면

“산불 피해자가 무슨 잘못 있다고 40% 책임지나” 격앙

고성산불 손해 소송 판결 ‘피해액 일부만 인정’ 이재민들 반발

고성 산불 이재민들은 20일 3년여 전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서 피해액의 일부만 인정되자 크게 반발했다.

이날 이재민들은 재판부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자 “오늘 이재민들에게 60%에 해당하는 배상금만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나머지 40%를 왜 이재민들이 책임을 져야 하나”며 “이재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100% 지급하라는 배상 판결을 내려야 했을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재민들은 26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의 감정평가금액은 절반 수준인 140억원이고, 최대 감정평가금액의 60%를 지급하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김경혁 4·4산불비상대책위원장은 “고성지역특별심의회에서 한전의 배상책임을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산정한 손해사정금액의 60%로 결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소송을 선택했는데 결과는 똑같이 나왔다”며 “오늘 판결을 절대 납득할 수 없고 권리가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항의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산불 피해자 21명이 2020년 1월 한전을 상대로 첫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

“이재민에게 책임 전가한 판결 권리 회복때까지 끝까지 항의”

정부 구상권·도 손해 소송 올해 선고 가능성 영향 촉각

다. 이재민들은 2019년 12월 고성지역특별심의회에서 한전의 최종 피해보상 지급금을 한국손해

사정사회가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임야·분묘 40%)로 의결하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에 나섰다. 이후 추가 소송이 잇따르면서 원고 수와 청구금액 규모가 늘어났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한전과 소송을 제기한 이재민들에게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리기도 했지만 양측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판결선고에 이르게 됐다.

이번 1심 판결로 피해 보상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정부와 한

전 간 구상권 청구 소송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춘천지법 민사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다음 달 17일 한전이 정부와 강원도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반대로 정부와 강원도 등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비용상환청구 청구 사건의 변론기일을 연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2021년 정부가 구상권(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아준 뒤 원 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청구방점을 밝히

자 한전이 300억원 규모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선제적으로 제기한 소송이다. 이에 정부 역시 방점대로 한전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했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강원도 등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산불에 따른 600억원 규모의 공공시설물 손해배상 청구소송 역시 올해 안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속초=권원근기자 kwon@kwnews.co.kr

2023년 04월 21일 (금)

지역 U07면

The JoongAng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되면 1조원 넘는 경제파급효과”

정선군 ‘국가정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5000명 이상 고용유발효과 기대
80만㎡에 8개 테마정원 조성 계획
범국민 추진위원회 이달 중 출범

보고회에 따르면 사업 타당성 측면에서는 생산유발효과 1조127억원, 부가 가치유발효과 4890억원, 수입유발효과 679억원 등 총 1조5714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한다. 고용유발효과는 약 5443명으로 보고돼 강원특별자치도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알파인경기장 생태복원과 연계된 환경친화적 공간배치와 시설 도입을 통해 가리왕산 자연환경의 생산적 복원과 낙후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됐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가 열렸던 강원 정선 가리왕산이 국가정원으로 조성되면 1조원이 넘는 경제파급효과와 5000명 이상의 고용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

정선군은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가리왕산 국가정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기본 계획을 공개했다.

해발 1381m인 가리왕산은 정선군 정선읍·북평면과 평창군 진부면에 걸친 곳으로, 정선지역 대표 올림픽 시설이다.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알파인 경기가 열렸던 곳이다. 더욱이 최승준 정선군수가 민선8기 공약으로 가리왕산의 국가정원 추진을 내걸면서 올림픽 유산가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가리왕산이 국가정원으로 조성되면 국내 첫 산림형 국가정원의 위상을 가질 수 있는 만큼 지역사회단체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

정선군은 이에 따라 생태복원, 올림픽 유산 사후활용, 지역균형발전 등과 연계해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의 당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방소멸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미래지향적 도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웰니스 정원경제 플랜을 갖춰 중부권 최초 국가정원이자, 기존 국가정원들과 차별화되는 국내 최초 산림형 국가정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은 80만㎡에 8개의 테마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280억원의 사업비를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투입해 완성하게 된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이번 가리왕산 국가정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지난달 강원도민·스포츠인·문화예술인들이 정선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정선군청]

조성의 타당성과 조성방안이 한층 더 체계적으로 제시됐다”며 “국비확보를 위한 정부 예비타당성 심사에 만전을 기해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염원하는 150만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7일에는 강원 정선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범국민 추진위원회가 결성, 이달 중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선군에 따르면 범국민 추진위원회는 그간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을 위해

활정한 강원도민 추진위와 스포츠인 추진위, 문화예술인 추진위가 통합한 것으로, 8명의 상임공동대표단과 40명의 공동대표단을 선출하고 기존 3개 추진위를 4개 분과위로 확대 개편하는 등 조직체계를 정비했다.

범국민 추진위는 앞으로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을 위해 강원도민, 스포츠, 문화예술 인사를 비롯한 국민의 지지를 결집하는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전영록 범국민 추진위 상임공동대표

는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은 올림픽 유산인 가리왕산을 활용한다는 국제적 명분과 지방균형발전 측면에서 중부권 최초 국가정원이라는 점,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 방법으로 최적의 대안이라는 점 등 그 당위성과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생태복원이라는 원칙만 되풀이하며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추진위가 앞장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중앙일보M&P 기자
park.jiwon5@joongang.co.kr

강원도민일보

오락가락 날씨에 냉해 입을까 농민 노심초사... 황사도 온다

강원도내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25도를 웃도는 등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20일 강원 영동 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삼척 30.2도, 동해·삼척 29.6도, 북강릉 28.1도, 속초 26.9도 고성 현내 26.2도, 양양 25.7도를 기록했다. 특히 동해와 북강릉의 경우에는 4월 중순 일최고기온 1위를 경신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초여름 날씨와 더불어 낮과

밤의 일교차 또한 15도 이상 크게 나면서 시민들과 야외에서 일하는 농민들의 불편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원주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24)씨는 “어제(19일) 아침에는 날이 쌀쌀해 외투와 긴 바지를 챙겨 입었는데 낮부터 날씨가 너무 더워 여름이 온 줄 알았다”며 “웃을 어떻게 입어야 할지 너무 고민”이라고 말했다. 흥천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는 이모(65)씨도 “새벽에는 서

2023년 04월 21일 (금)

사회 05면

리가 내리다 낮에는 25도까지 올라가면 꽃이 냉해를 입을 수도 있어 매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21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내려갈 전망이다. 21일 도내 아침 최저기온이 영서 6~13도, 영동 8~13도, 낮 최고기온은 영서 17~23도, 영동 14~17도로 예보됐다.

또 황사가 국내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 20일 오후 5시 강원지역에 황사위 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21일 영동은 미세먼지 수준은 ‘매우 나쁨’, 영서는 ‘나쁨’일 전망이다. 김정호

강원도민일보

2023년 04월 21일 (금)
사설/칼럼 19면

춘천 데이터센터 총력전 펼쳐야

-기업 환경·교통 장점 호소 주도권 선점 기대

정부가 수도권에 몰린 데이터센터를 지역에 분산하기로 하면서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각 지자체가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데이터센터가 지역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데다, 관련 지식 정보화 기업을 동시에 끌어들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센터 유치는 춘천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면서 고용효과를 높이는 한편, 인구 유입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춘천 데이터산업단지 조성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태 도지사의 공통 공약입니다. 타 시도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 유치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도는 21일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8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강원도 데이터센터 기업 유치 설명회를 열고, 2027년 준공을 앞둔 춘천 수열 클러스터 내 데이터센터의 입지 이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는 삼성물산·카카오·포스코DX·LG유플러스 등 80여개 기업과 100여개 지자체·기관 관계자 200여명이 찾을 예정입니다. 도는 6개 데이터센터와 300여개 IT기업 유치를 목표로 유치당위성을 호소하기로 했습니다.

소양강댐이 위치한 춘천시는 수열 에너지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데 최적의 자연 여건을 갖추고 있

습니다. 클러스터 단지 내 데이터센터 부지는 소양강을 끼고 있어 인근 지역보다 평균 기온이 2~3도 낮아 데이터센터의 열을 식히는데 필요한 전력의 20~30%를 줄입니다. 또한 ITX 청춘과 경춘선 전철이 운행되고 있는 춘천시의 교통망은, 2027년 동서고속화철도와 2028년 제2경춘국도 개통에 따라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최근 수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투자 선도지구 조성사업 실시 계획이 도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를 통과,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센터 유치전은 춘천에 유리하게 전개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충청남도는 당진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16개사 총 3조 232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충주시는 2조 630억원 규모의 데이터센터 설립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타시도는 이미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와 춘천시는 기업 유치에 총력을 쏟아야 합니다. 한번 주도권을 뺏기면, 유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동종의 기업들은 한 곳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치밀한 전략과 유치에 대한 절실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4월 21일 (금)

사설/칼럼 19면

고속화철도망 조기 구축 여론 거세다

-특별자치시대 공동체 통합, 원활한 교통 필수

친환경 대중교통의 핵심 수단인 철도망 구축을 촉구하는 강원도민 여론이 거셉니다. 강원도시·군번영회 연합회는 최근 삼척~동해~강릉 고속화철도 조기추진 및 동해~서울 간 KTX 증차를 촉구하는 대정부 행동을 결의했습니다. 동해선 철로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고속화철도사업의 조속한 착수가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삼척~영월 고속화철도에 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홍천과 경기도를 연결하는 철도사업 우선착수 등 도내 시군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철도망 구축 촉구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4월 19일 대정부 건의를 채택한 번영회연합회가 제기한 것처럼 강원 동해남부권이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성장거점으로 발돋움하려면 철도가 필수입니다. 근래 동해안권역은 철도망 구축환경이 새롭게 바뀌는 시점입니다. 2024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동해~포항 공사가 진행 중이기에 동시개통을 통해 효율성을 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2년 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신규 반영됐고, 2022년에 예비타당성 사업으로 선정됐기에 강릉~삼척 고속화철도사업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더욱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시군별 산업 발전 촉진 동력이 될 철

도와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중앙정부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해마다 국비예산 편성 시기에 맞물려 통상적으로 제기하는 수준으로 가볍게 여겨서는 곤란합니다.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전환하게 된 배경은 다른 아닌 악화된 삶의 질과 일자리, 낙후된 지역현실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민 정서가 중앙정부의 배제 횡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단계에 왔음을 직시해 도민 여론을 수용해야 합니다.

강원도는 면적이 넓고 산악 지형이어서 평야지대나 수도권 어느 곳보다 일찍 대중교통으로서 철도망이 발달해야 하지만, 오히려 중앙정부는 인구가 적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소외시켜 왔습니다. 철도망 구축은 단순히 대중교통이 편리해지는 수단으로만 여길 사안이어야 합니다. 경기부양책과 밀접하고 탄소 절감 등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특히 주민이동량을 촉진해 공동체 통합에 기여하는 효과를 불러옵니다. 강원도와 정치권은 조밀한 교통체계 구축 없이 도민 사회 통합도, 특별자치도 성공도 요원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성과를 내야 할 것입니다.

江原日報

2023년 04월 21일 (금)

사설/칼럼 25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전면 재검검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을 전면적으로 원점부터 재검검해야 한다. 인천 전세사기 사태 여파로 인해 10여년 동안 파행을 거듭해 온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동해 망상1지구 개발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망상1지구 국제 복합관광도시 사업을 추진하던 동해이씨티(유)가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며 조직적인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된 남모(62·구속 중)씨가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으로 밝혀졌다. 망상1지구의 동해 이씨티 소유토지 231필

지는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동해이씨티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까지 사회단체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즉, 재정

능력을 의심하며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도 그간 동해이씨티의 투자 능력에 의문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민간자본 유치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물론 수백, 수천억원의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어야 하는 개발 사업의 민간자본 유치는 긍정적 측면이 많다. 가장 큰 매력은 자치단체의 경우 예산 부담에서 벗어나 사업을 조기에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민간 자본은 사업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는 상생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민간자본 유치는 또 주민들에게도 손해가 아니다. 재정 상태가 여의치 못한 자치단체에 몰려가 대책 없이 떠쓰는 것보다 민간자본이 투입돼

개발 사업이 착착 시행에 들어가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민간자본 유치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자본 여력이 불투명할 경우 사업 시행이 대책 없이 늦어지면서 세월만 허송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동해 망상1지구 개발 사업이 꼭 그런 경우다. 특히 범대위는 “S건설을 운영하던 남씨가 자본금이 70억여원에 불과한 데다 143억8,000만원에 낙찰받은 골프장 부지 대금의 지급을 미루다 뒤늦게 잔금을 치렀고 이 부지 또한 제2금융권 10여곳에 근저당 및 지

상권이 설정됐다”며 사업시행자의 사업 추진 능력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개설명회 개최 등을 요구했었다.

민간자본 유치로 개발 사업 진행의 효율성을

망상1지구 개발 시행사 대표, 사기 혐의 구속
사회단체 등, 재정 능력 의심 특혜 의혹 제기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치밀한 분석 뒤따라야

극대화하려는 민자 사업이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파생하며 늦어질 경우 본래의 취지를 잃은 것은 자명한 일이다. 되지도 않는 민간자본 유치에 집착하다 사업을 망치고 주민들의 원성만 사게 된다. 민간자본 유치는 개발 사업의 조기 시행을 위한 방안의 하나이지 민병통치약이 아니다. 더군다나 수익 창출을 전제하는 민간자본은 자치단체가 원한다고 모든 사업에 순순히 응할 턱이 없다. 경자청은 사정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으나 보다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경자청이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를 교체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추진 중인 민간자본 유치가 여의치 않다면 전면 재검토포해야 한다.

江原日報

2023년 04월 21일 (금)

사설/칼럼 25면

유류세 인하 연장, 경제 후퇴로 이어져선 안 돼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4개월 연장됐다. 정부가 최근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 경제 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다. 주요 산유국 협의체(OPEC+)의 감산 발표로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확대된 만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세수 공백 등의 후폭풍을 감당할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는 국세 수입이 4년 만에 세수 결손이 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올 2월까지 누계 세수가 전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원이나 줄었는데 앞으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경기 불확실성도 커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에 모두 적신호가 켜졌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세입 예산이 400조5,000억원인데 3월 이후 전년 수준으로 꾸준히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20조 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으로 5조5,000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에도 차질이 발생했다. 유류세 인하는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체감 혜택이 크지 않은 데다 국제유가가 오를 경우 인하 효과마저 상쇄된다.

특히 일률적 유류세 인하의 혜택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몰린다는 것은 2008년 금융위기 등 역대 정

책 평가에서 확인된 바 있다. 직격탄을 맞는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 고물가는 경기 침체를 야기하고 저소득층 생계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 따라서 정부가 서민 고통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물가대책을 추가로 발굴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는 코로나19 사태에 이어 고금리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에 치명적이다.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은 지금부터가 더욱 중요하다.

현재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는 주춤하고 있지만 성장률 둔화는 지속되는 변곡점에 와 있다.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도 비중 있게 챙겨야 한다. 세수 감소는 한국경제 곳곳에 빨간불이 들어왔음을 나타내는 종합 신호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데 세금이 잘 걷힐 리 만무다. 꺼져 가는 기업의 성장 엔진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당장 필요하다. 수출은 막히고 은행에 꼬박꼬박 내는 이자비용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은 경기 활성화와 지출 구조 조정이다. 경기가 살아나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가 활력을 되찾으면 인위적인 증세 없이도 세수가 자연히 늘어나는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 선심 정책 경쟁으로 경제 살리기가 후퇴하는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